

새롭게 열리는 코스타리카 통신시장

내년 1월 미국과 중미국가 간 자유무역(CAFTA)협정 발효를 앞두고, 코스타리카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 기업들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CAFTA 협상을 통해 미국시장 접근권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 독점인 통신, 보험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제 CAFTA협정 발효가 임박하면서 통신시장 개방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까지 코스타리카 통신시장에 명시적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미국의 AT&T, 멕시코의 America Movil 등이다.

코스타리카는 CAFTA 발효와 함께 우선 통신시장을 감독할 정부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휴대전화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통신시장이 개방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통신 관련 장비, 단말기 등 통신기자재 수요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

나이지리아, 컴퓨터 UPS 수요 매우 커

나이지리아에서 컴퓨터 사용 시 정전에 대비해 설치하는 UPS의 수요가 매우 높다. 나이지리아는 전력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정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컴퓨터 설치 시 UPS를 갖추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됐다. 공공기관, 은행, 기업 등 거의 모든 조직들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사용자들도 UPS를 사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연간 UPS 수입은 연간 3백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불법통관이 많음을 감안할 때 실제 수출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수입상들은 추정하고 있다. UPS는 현지생산이 없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등으로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약 8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산은 현지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좋은 것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 시장진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e-마켓 부상

헝가리 e-마켓 규모는 매년 30~40%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Sulinet Express' 프로그램을 통해 IT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중에 있어 온라인 마켓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마켓 연간 매출액은 5천만달러로 총 매출액의 0.2% 수준이지만 PC 보급률 확대와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인터넷 이용료 인화와 이에 따른 DSL 서비스 공급 증가로 2005년 6월 기준 인터넷 가입자 수는 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IT환경 개선 및 PC 보급률의 증가, 전자 상거래법의 제정 등에 따라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료의 인화와 일선학교의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도 일반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출처 : KOTRA

직원들은 답을 알고 있다 《Idea Revolution》

20세기 초까지도 '생각하는 일'은 직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다. 경영진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직원들은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사원까지 전력투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 시대에서 경영진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영학자인 앨런 로빈슨과 딘 슈뢰더가 함께 쓴 《Idea Revolution》은 조직 안에서 생성되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전 세계 300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며 흥분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 책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실제 방해물은 일선의 직원들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특별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미래의 창 펴냄)

